OPINION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문화산책

왜 줄었을까

강혜경
문학박사·문화기획자

도시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흔히 눈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나 투자 규모를 떠올리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 도시가 품고 있는 문화, 그리고 예술을 시민과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가가 진정한 경쟁력을 보여준다.

경제 지표는 등락을 반복하지만, 문화적 매력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가장 깊은 힘이다.

광주는 스스로를 '문화중심도시'라 불러왔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적 기억을 공동체의 자존으로 번역해온 도시다. 그러나 상징은 선언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상징을 일상으로, 정체성을 제도로 옮기는 일은 결국 정책과 예산이라는 구체적 선택에서 증명된다.

민형배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를 보면, 광주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줄어든 몇 안 되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수치의 하락이 곧바로 문화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줄었을까. 문화행사 수준은 높아지고 시민의 눈높이도 함께 오르면서 필요한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럼에도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배경에는 몇 가지 확인 가능한 환경 변화와 합리적 해석이 교차한다.

첫째, 지역 간 배분 격차와 경쟁이 심화된 점을 들 수 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3300억원대, 전북특별자치도는 2200억원대를 지원받았다. 보조금은 상당수가 공모와 평가 방식으로 배정되는데, 기획력과 성과, 파급효과 등에서 차이가 나면 지역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사업 탈락의 세부 사유는 공개되지 않지만, 광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둘째,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재정 여건도 무시할 수 없다. 자체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보조금 변화가 곧바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다수 도시가 공유하는 구조적 현실이다.

국고보조가 줄어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정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는 그 여파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셋째, 정책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 '문화비전 2030'과 이후 수립된 지역문화진흥계획은 '자치와 분권'을 기조로 삼아왔다. 방향은 옳지만, 그만큼 지역이 스스로 기획과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강화되었다.

준비가 부족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연구보고서들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중앙의 직접 지원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지역 주체의 설계력이 성패를 가른다고 경고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을 함께 살펴보면, 광주의 국고보조금 감소는 특정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배분 격차가 커진 환경과 재정 체력의 약세, 그리고 분권과 경쟁 체제의 강화가 맞물린 결과임을 추측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을 모색하는 일이다.

문제는 이 상황을 단순한 에피소드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로 읽어낼 것인가에 있다. 최근 수년간의 정책 환경은 중앙 주도에서 지역 설계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모 중심의 사업 구조, 평가와 성과를 전제로 한 배분 방식, 그리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기금 제도의 확대는 모두 지역의 기획력과 실행 능력을 전제로 한다. 준비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민들은 갈수록 먹고살기 퍽퍽하다고 한다. 문화예술가들도 다르지 않다. 불안정한 일자리, 줄어드는 지원 속에 창작 활동의 공간은 점점 좁아진다. 예술이 삶의 여백이 되기보다 생활의 무게에 밀려나는 현실이다.

문화예산은 행사를 치르기 위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지역의 창작 생태계를 지켜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을 쌓는 일이기도 하다. 다른 도시들이 문화자치 조례와 독자적 전략을 세우는 이유는 중앙의 흐름이 점차 분권과 경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역시 이제는 중앙 의존을 넘어, 지역 고유의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문화매력도를 높이는 길이 곧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기고

멈춘 심장 되살리는 기적…당신도 할 수 있다

최정식
광주 서부소방서장

필자가 몸담고 있는 직업인 소방공무원은 누군가가 처한 위기에 손길을 전해 그를 구하고 살려내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힘들지만 매력적이다.

재난 또는 응급상황에서 그를 도우는 것,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결국 해냈을 땐 너무나도 뿌듯한 일이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현장 하나하나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정말이지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의 박동과 폐의 활동이 멎은 상태에서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통해 혈액을 다시 순환시키고 호흡이 돌아오도록 하는 응급처치 방법이다.

심정지 환자에게 '골든타임'은 4분 이내다.

골든타임이란 어떤 일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대라는 뜻으로, 심정지 후 4분이 경과하면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떨어진다.

하지만 심정지 환자 역시 신고접수와 출동, 현장 도착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4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짧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최초 목격자가 용기를 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관건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급성심정지는 3만3000여건에 달하며,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30.2%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시행률이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으나, 주요 선진국은 40~50%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적극적인 교육과 실천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심폐소생술은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반응 확인이다.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둘째, 119에 신고하기다. 주변 특정인을 지칭해 큰소리로 119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제세동기(AED)를 가져다줄 것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하고 구급상황요원의 지도에 따른다.

셋째, 호흡 확인이다. 일반인의 경우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급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비정상 호흡인지 확인한다.

넷째, 가슴압박이다.

환자를 바로 누운 자세로 눕힌 뒤 환자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깍지 낀 자세로 압박을 실시한다.

양팔은 쭉펴 90도 각도를 유지하며 성인 기준 약 5㎝ 깊이로 가슴압박을 30회 실시한다. 이때 각각 가슴압박 후에는 가슴이 다시 충분히 올라오도록 이완시켜 혈류가 심장으로 잘 채워지도록 한다.

다섯째, 인공호흡이다. 환자의 턱을 당겨 기도를 개방시킨 후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 막고, 2회 숨을 불어 넣는다. 이때, 환자의 가슴 상승이 확인될 정도의 호흡량을 1초간 불어넣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자동제세동기가 있는 경우 사용한다. 환자 상의를 벗긴 후, 두 개의 패드를 기계 내 그려진 부착 위치와 음성 안내에 따라 붙인다.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심장리듬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오면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진다.

이후 '제세동 필요'라는 음성이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제세동 직후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을 반복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은 익히고 나면 어렵지 않은 것임에도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어렵게만 생각해 배우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4월 서부소방서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대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로 구성된 팀이 몇 달간의 연습을 거쳐, 성인 팀들을 제치고 최우수상(1위)이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뤄낸 성과는 단순히 대회 성적을 넘어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깊은 울림이었다.

장소와 시간, 사람에 관계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심정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존과는 점점 멀어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에 점점 가까워진다.

30번의 흉부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으로 멈춘 심장을 다시 되살리는 기적,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취재수첩

연대의 빛으로 물들일 광주여성영화제

정채경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나 여기 있어'. 2010년 '광주여성영화제'가 맨 처음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남성 중심 서사가 주를 이루는 업계에서 영화를 매개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센세이션했다. 중앙이 아닌 지방, 광주에서.

영화제는 그 뒤로도 꾸준히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았다.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의 '선을 넘다'(2011)를 비롯해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의지가 담긴 '이제 우리가 말한다!'(2018), 다시 시작해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뜻의 'ZERO(再路)'(2020), 어떤 혐오와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모아 우리 만의 판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염원을 담은 '더 크게 한판'(2023),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온 변화를 세어보며 변화의 합을 만들어간다는 '카운트 업'(2024)까지 참 다양했다.

그래서일까. 회를 거듭할수록 영화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일 먼저 캐치프레이즈가 궁금했다. 그해 영화제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일 터다.

영화제는 이렇듯 매년 세상을 향해 화두가 던지면서 여성주의 이슈는 물론이고, 지역의 현안을 공론화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광주지역 대표 영화제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올해 16회를 맞는 영화제는 준비가 한창이다. 캐치프레이즈는 '우리는 빛으로'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로를 비추고 이어주던 가느다란 빛이 마침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에 모였을 때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빛이 돼 뻗어나간다는 의미다.

영화제를 앞두고 추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마련한 자체후원행사 '솔찬한 밤'을 통해 영화 팬들과 영화제를 응원하는 후원자들을 한 데 모았고, 귄 장·단편 공모에 응모한 474편(장편 35·단편 439) 가운데 본석 진출작 20편(장편 8·단편 12)을 선정했다.

20편을 포함해 엄선한 국내·외 경쟁 및 초청작 약 55편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간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광주여성영화제가 올해는 어떤 작품들로 시민들을 연대의 빛으로 물들일지 기대된다.

사설

광주 '산단 근로자 천원 아침밥' 확산되길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산단 근로자 천원 아침밥'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산단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근로자의 식습관 확산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전국 산단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 20개 산단내 입주기업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 단체형 5곳, 개별형 11곳 등 시범사업 대상지 16개소를 선정했다.

오는 12월 19일까지 실시되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광주는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가 단체형에 뽑혔다.

사실 광주는 이미 지난 2023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산단근로자 조식지원사업(간편한 아침 한끼)'을 시행해 왔다.

근로자들이 아침을 거르지 않고 건강하고 저렴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이 사업은 김밥·샌드위치·샐러드를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인 2000~3000원에 제공했다.

호응이 좋아 2023년 하남산단 1호점을 시작으로 2024년 첨단산단 2호점까지 확대했으며, 실제로 현재 하루 평균 200여 식이 판매될 만큼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 지역 농업과의 상생 도모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농협 광주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품질 쌀을 기부받아 식자재로 활용하는 등 쌀 소비 촉진에 기여했다고 한다.

특히 산단내 식사 여건이 취약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산단 노동환경 개선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창원시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광주시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동안 정부의 쌀 소비 촉진 방침에 발맞춰 김밥만 1000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평동산단에 3호점을 개소하는 등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전국화되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위기의 광주·전남 자영업 살리는 묘책 없나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의 현주소가 가히 충격적이다.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과 부채 증가, 폐업 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출 보유 자영업자 수는 광주 8만5130명, 전남 13만2535명이다.

이는 통계청이 8월 기준으로 집계한 광주 13만9000명, 전남 28만8000명 등 전체 자영업자 수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문제는 이들중 3개월 이상 대출상환을 연체한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광주의 경우 2020년 1313명, 2021년 1518명, 2022년 1999명, 2023년 3623명, 2024년 4750명, 2025년 7월 4929명 등 5년 새 3.75배 늘었다.

전남도 2020년 1563명, 2021년 1815명, 2022년 2536명, 2023년 4681명 2024년 6069명, 2025년 7월 6422명 등으로 4.1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당연히 전체 대출 금액도 2020년 광주 18조7619억원, 전남 19조6894억원에서 2025년 7월 광주 24조7898억원, 전남 30조7626억원으로 5년새 1.5배가량 증가했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들의 대출금도 2020년 광주 1978억원, 전남 2205억원에서 2025년 7월 광주 8969억원, 전남 1조 513억원 등 4.5배 이상 급증했다.

폐업과 부채규모도 계속 증가추세다.

폐업공제금 수령건수는 광주는 2019년 1880건에서 2023년 3010건으로 4년새 60.5%, 전남은 2019년 1380건에서 2023년 2980건으로 115.4%나 급증했다.

자영업자 1인당 부채 또한 2023년 기준 광주는 2억9000만원, 전남은 2억 1000만 원 수준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으로, 지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부사장·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진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